

척들은 몰인정했고, 사랑하는 남편도 없어서 나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었습니다. 하지만 그 후로는 여러분과 더불어 이 초라한 오두막 아래 살면서, 더 깊은 위로와 더 큰 행복을 맛봤어요. 고국에서는 우리 가문에 돈이 아무리 많았어도 꿈도 껴보기 힘들었을 것들이죠.”

이 말에 모두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네. 폴은 라 투르 부인을 품에 안으며 말했다.

“저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어요. 당연히 인도에도 가지 않을 거고요. 사랑하는 어머니, 우리 모두가 어머니를 위해 일할 겁니다. 그러니 우리와 함께라면 어머니께 부족한 것이 없을 거예요.”

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온 식구들 중, 기쁘다는 내색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은 비르지니였네. 그 아이는 남은 하루 동안 온화하고 명랑한 사람처럼 보였고, 평온함을 되찾은 그 모습에 다들 더없이 흡족해했지.

이튿날 동틀 무렵, 늘 하던 대로 다 같이 모여 식사에 앞서 아침기도를 막 올리고 있었을 때, 도맹그가 말을 탄 신사 한 명이 두 명의 노예를 대동하고 집으로 오고 있다고 알렸네. 라 부르도네 씨였지. 그가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고, 온 집안사람들은 식탁에 둘러 앉아 있었어. 비르지니는 이 나라 풍습에 따라 커피와 쌀밥을 막 덜어놓은 잠이었지. 그 아이는 뜨거운 고구마와 싱싱한 바나나를 추가로 내왔네.